

# 설명자료

배포일시	2021. 2. 2.(화) 17:00 (총 4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한윤덕 주무관 함인화
		전화번호	033-650-0347

## 3일 저녁~4일 새벽, 강원내륙과 산지 많은 눈

- 강원내륙과 산지 최대 15cm 매우 많은 눈
- 강원내륙과 산지 곳곳 빙판길, 3일 퇴근길~4일 출근길 교통안전 유의



[ 2월 3일(수) 밤 예상기압계 모식도 ]

- 강원지방기상청(청장 한윤덕)은 3일(수) 저녁~4일(목) 새벽에 강원내륙과 산지에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, 출·퇴근길 교통안전과 시설물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.

## [ 기압계 전망 ]

- 강원지방기상청은 3일(수) 저녁~4일(목) 새벽에 제주도 남쪽 해상을 이동하는 고기압과 중국 북부지역에서 다가오는 고기압 사이에서 강수 구름대를 동반한 저기압이 발달하고,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통과하면서 강원내륙과 산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.
- 2일 현재 우리나라 내륙을 중심으로 차가운 공기가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,
- 3일 저녁에 서해북부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과 남쪽 해상에 위치하는 고기압 사이로 ① 온화하고 습윤한 공기가 강하게 불어들면서 강원내륙과 산지에 강수 구름대가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밤 동안에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이동함에 따라 ② 저기압 북서쪽의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강수 구름대의 강도가 더욱 강해지겠고,
- 이후 찬 공기에 밀리는 눈구름대가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원영서북부는 4일 이른 새벽(00~03시)까지, 그 밖의 강원영서중남부는 4일 새벽(03~06시)까지 눈이 내리겠다고는 설명이다.

## [ 강수 전망 ]

- 저기압에 동반된 구름대가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원내륙과 산지는 3일 저녁~4일 새벽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.
  - 한편, 3일 밤(21시)부터 4일 새벽(06시)사이 강원동해안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,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1cm미만의 눈이 조금 쌓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.
- 눈 구름대가 북쪽에서부터 강하게 발달하여 이동하면서 기온이 낮은 강원내륙과 산지에는 많은 눈이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,
  -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강한 바람이 지형과 부딪히는 강원내륙과 산지에는 최대 15cm의 매우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하였다.
  - 특히, 3일 늦은 밤에는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눈의 강도가 더욱 강해지겠고, 이 영향으로 1~2시간 동안 적설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였다.

<예상 적설/ 예상강수량(3일 저녁(18시)부터 4일 새벽(06시) 사이)>

- 강원내륙과 산지: 5~15cm/ 5~10mm

-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관은 “3일 밤부터는 눈의 강도가 강해지는 만큼 이 시간대에 눈이 예상되는 강원내륙과 산지에서는 퇴근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”고 권고하면서,

- 4일 새벽~아침에는 저기압 북서쪽에서 뒤따라 들어오는 찬 공기에 의해 쌓인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예상되니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.
- 또한, 대기하층(1km이하)의 기온 변화에 따라 강수형태와 적설의 변동이 크겠다면서,
  - 이러한 변동성에 대비하여 지상 및 대기 하부(700~800m 상공)의 기온 변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, 서쪽에서 구름대가 다가오는 **3일 낮부터는 1~2시간 간격으로 강수의 시작 시점과 형태에 대한 최신의 기상정보를 발표**하겠다고며,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.
- 이후 당분간은 우리나라의 높은 상공에 자리 잡는 온화한 공기에 의해 이번 주말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.